

## 수, 해운 승선계열 대학생의 의식 구조

이길래 · 배석제 · 홍성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

### I. 서 론

근래 우리 사회는 발전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로 산업구조가 수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산업계에서 바로 쓸수 있는 알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인재를 양성하는 창조적 작업으로서 보편적 교육의 효과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주는데서 그 가치가 돋보일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수, 해운계에서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 발전하여 왔으나 질적인 발전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대학 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수, 해운산업 등의 일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가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교육개방, 3P(인구폭발, 빈곤, 공해)문제, 그리고 날로 팽배해 가는 수, 해운업체의 내소날리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무조건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대학에 합격해 놓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대학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아무리 성의 있게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과연 얼마만큼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인생관, 그리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에게 교수가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여건등이 뒷바침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의 연구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로는 金<sup>1)</sup>, 金<sup>2)</sup> 등 다수가 있고, 수산전문대생에 대해서는 鄭<sup>3)</sup> 등의 연구 보고가 있었으나, 수, 해운계 대학생에 대하여는 연구가 없어, 필자 등은 우선 수, 해운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하여 장차 개선하여야 될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연구 방법

문헌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식 구조를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정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을 만들어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영역

- 1) 입학동기와 전반적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 2) 교과 과정 및 교수에 대한 견해
  - 3) 여가 선용 및 인격 형성에 대한 의식
  -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 4개 영역에 23개 문항을 설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중 3개 문항은 의견 기술식으로 만들었다.

### 2. 설문 조사

전국에는 수산계 대학이 4개, 해운계 대학이 2개 있다. 그 중 수산계 대학으로는 서해안의 중심지역인 군산에 소재한 군산대학교, 동남해안은 부산소재 부산수산대학교, 해운계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를 택하여 각 대학교의 승선계학과 1~3학년 학생 총 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응답한 648명(62.2%)의 결과(표 1)를 SPSS PC<sup>+</sup>로서 전산 처리하였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이자승 차의 검증을 하였다.

<표 1> 설문 대상

학과 학년	해양생산, 어업공학과			선박운항, 해사수송학과		기관공학과			계
	1	2	3	1	2	1	2	3	
군산대학교	34	30	33			35	42	39	213
부산수산대학교	23	28	26			20	57	28	182
한국해양대학교				61	116	19	57		253
계	57	58	59	61	116	74	156	67	648

## Ⅲ. 결과 및 분석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검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입학동기,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 1) 입학동기

<표 2>에서 학생들의 입학 동기를 살펴 보면 성적에 맞춰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수, 해운업계가 전망이 좋아서 15.7%, 장래를 고려해서 15.6%, 부모의 권고로 12.7%의 순이었다. 성적에 맞춰서 진

<표 2>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된 동기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장차 수, 해운업계의 전망이 좋아서		30(14.1)	23(12.6)	49(19.4)	102(15.7)
부모나 주위의 권유로		8(3.8)	41(22.5)	33(13.0)	82(12.7)
나의 적성을 고려해서		23(10.8)	18(9.9)	60(23.7)	101(15.6)
성적에 맞춰서		129(60.6)	80(44.0)	43(17.0)	252(38.9)
기타		23(10.8)	20(11.0)	68(26.9)	111(17.1)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129.76$  df=8 P<.001

<표 3> 승선 전공별 입학동기

설문내용	대상 학생	갑판부	기관부	계
수, 해운업계의 전망이 좋아서		57(16.0)	45(15.4)	102(15.7)
부모님 주위의 권유를 받아서		42(11.8)	40(13.7)	82(12.7)
나의 적성을 고려해서		63(17.7)	38(13.0)	101(15.6)
성적에 맞춰서		130(36.5)	122(41.8)	252(38.9)
기타		64(18.0)	47(16.1)	111(17.1)
계		356(100%)	292(100%)	648(100%)

$\chi^2=9.23$  df=4 P<.05

학했다는 학생은 해운계(해대 17.00%)보다 수산계(군산대 60.6%, 부산수대 44.0%)가 훨씬 높았고, 장래를 고려해서 입학했다는 학생은 해운계(23.7%)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수산업계 보다는 해운산업이 구조와 특성상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산계 학생의 57% 이상은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다만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부모의 권유나 성적에 맞춰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면 전공별로 전망과 장래를 고려해서 진학한 학생은 갑판부 16.0%, 기관부 15.4%로 갑판부와 기관부가 거의 동일한 반면에 성적에 맞춰서는 기관부가 약간 높았다.

2) 학과 및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 4>에서 보면 만족한다 34.4%, 불 만족한다 20.1%, 그저 그렇다가 45.5% 나 되었다.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결과는 부산수산대학이 41.2% 로 가장 높고, 해양

<표 4> 학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만족한다		56(26.3)	75(41.2)	92(36.4)	223(34.4)
불 만족한다		49(23.0)	22(12.1)	59(23.3)	130(20.1)
그저 그렇다		108(50.7)	85(46.7)	102(40.3)	295(45.5)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17.65$  df=4 P<.001

<표 5> 대학생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아주 만족한다		6(2.8)	9(4.9)	10(4.0)	25(3.9)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5(40.1)	124(68.1)	119(47.0)	328(50.7)
조금 불안하다		83(39.2)	40(22.0)	94(37.2)	217(33.5)
불만이다		38(17.9)	9(11.9)	30(11.9)	77(11.9)
계		212(100%)	182(100%)	253(100%)	647(100%)

$\chi^2=41.52$  df=6 P<.001

대학 36.4%, 군산대학 2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 분석은 표 5와 같다.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 하였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50.7%, 조금 불안하다가 33.5%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과반수 학생이 대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표 2에서 볼수 있는 입학 동기와 만족도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 2. 교과 과정 및 교수에 대한 의식

### 1) 학교 교육의 방향과 목표

<표 6>에서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실습과 이론을 적절히 교육시켜야 한다는 학생이 74.3%로 절대적이었고, 실습을 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학생은 19.3%, 이론을 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결과는 3.4% 이었다.

<표 6> 학교 교육의 방향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이론을 주로 교육해야 한다		6(2.8)	11(6.0)	5(2.0)	22(3.4)
실습을 주로 교육해야 한다		44(20.8)	38(20.9)	43(17.0)	125(19.3)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교육해야 한다		152(71.7)	129(70.9)	200(79.1)	481(74.3)
잘 모르겠다		10(4.7)	4(2.2)	5(2.0)	19(2.9)
계		212(100%)	182(100%)	253(100%)	647(100%)

$\chi^2=11.28$  df=6 P<.05

<표 7> 학교 교육의 기본 목표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기술교육과 인간교육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 교육		153(71.8)	153(84.1)	192(76.5)	498(77.1)
중견 기술인 양성		31(14.6)	22(12.1)	21(8.4)	74(11.5)
철저한 해기사 양성 교육		17(8.0)	2(1.1)	27(10.8)	46(7.1)
모르겠다		12(5.6)	5(2.7)	11(4.4)	28(4.3)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21.90$  df=6 P<.001

또 교육의 기본목표(표 7)는 기술교육과 인간교육을 적절히 조화해 가는 방향이 77.1%로 절대다수를 차지 했고, 중견 기술인 양성이 11.5%, 철저한 해기사 양성교육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비록 성적에 맞추어 입학했지만(표 2), 입학 후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수의 강의 내용 및 교수와의 인간 관계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표 8)은 강의 내용이 장차 직업선택에 유용할 것 같다 30.6% 이고, 직업선택에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 36.4%, 잘 모르겠다 33.0%로, 교수의 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과 교수와의 인간관계(표 9)는 단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가 47.7%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 39.0%,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는 13.3%에 불과했다. 이는 스승과 제자간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8> 교수의 강의 내용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장래 직업선택에 유용할 것 같다		64(30.0)	53(29.1)	81(32.0)	198(30.6)
장래 직업선택에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		83(39.0)	61(33.5)	92(36.4)	236(36.4)
잘 모르겠다		66(31.0)	68(37.4)	80(12.3)	214(33.0)
계		213(100%)	182(100%)	251(100%)	646(100%)

$\chi^2=11.57 \quad df=4 \quad P<.05$

<표 9> 학과 교수와의 인간관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31(14.6)	41(22.5)	14(5.5)	86(13.3)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듣는 정도다		98(46.0)	56(30.8)	155(61.3)	309(47.7)
그저 그렇다		84(39.4)	85(46.7)	84(33.2)	253(39.0)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49.21 \quad df=4 \quad P<.001$

3)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상

학생들의 교수상에 대한 설문내용은 <표 10>과 같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상은 이해심이 많은 교수 38.4%,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교수 33.1%, 공부를 잘 가르키는 교수 18.1% 순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은 강의를 잘 하는 교수보다는 깊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수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4) 이수한 학문의 이용 기대도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쓰여질 것이냐는 설문결과는 <표 11>과 같다.

별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가 46.3%, 대체로 쓰여질 것이다가 41.8%, 거의 쓰여질 것이다가 7.1% 순

<표 10> 바람직한 교수상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공부할 잘 가르키는 교수		31(14.7)	46(25.3)	40(15.8)	117(18.1)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교수		81(38.4)	56(30.8)	77(30.4)	214(33.1)
이해심이 많은 교수		80(37.9)	60(33.0)	108(42.7)	248(38.4)
재미있게 잘 노시는 교수		4(1.9)	5(2.7)	4(1.6)	13(2.0)
기타		15(7.1)	15(8.2)	24(9.5)	54(8.4)
계		211(100%)	182(100%)	253(100%)	646(100%)

$\chi^2=14.02$  df=8 P<.05

<표 11> 학문에 대한 기대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거의 쓰여질 것이다		8(3.8)	13(7.1)	25(9.9)	46(7.1)
대체로 쓰여질 것이다		79(37.1)	72(39.6)	120(43.3)	271(41.8)
별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118(55.4)	88(48.3)	94(37.1)	300(6.3)
무응답		8(3.8)	9(1.4)	14(2.2)	31(4.8)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19.27$  df=8 P<.01

으로, 대학의 학문 내용의 장차 이용기대는 많은 학생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표 8>에서 볼수 있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5)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평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평가에 대한 설문(표 12)은 시정할 점이 많다가 62.9%로 가장 높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가 7.9% 순으로, 이 결과는 앞으로 대학운영에 크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학교에 대한 평가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		17(8.0)	23(12.8)	11(4.4)	51(7.9)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41(19.2)	49(26.9)	37(14.7)	127(19.6)
시정할 점이 많다		135(63.4)	85(46.7)	187(74.2)	407(62.9)
그저 그렇다		20(9.4)	25(13.7)	17(6.7)	62(9.6)
계		213(100%)	182(100%)	252(100%)	647(100%)

$\chi^2=35.39$  df=6 P<.001

3. 여가 선용 및 인격 형성에 관한 의식

1) 대학 생활에서 보람된 생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생활이었다고 생각한 것(표 13)은 친구 교제가 43.6%로 가장 높

<표 13> 보람된 학교생활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강의 수강		11(5.2)	11(6.0)	21(8.3)	43(6.6)
씨클활동		57(26.9)	57(31.3)	82(32.4)	196(30.3)
친구 교제		96(45.3)	71(39.0)	115(45.5)	282(43.6)
기타		48(22.6)	43(23.6)	35(13.8)	126(19.5)
계		212(100%)	182(100%)	253(100%)	647(100%)

$\chi^2=11.12$  df=6 P<.05

고, 씨클활동 30.3%, 기타가 19.5%, 강의수강은 겨우 6.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학문연구의 장으로라기 보다는 생활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 독서량과 많이 읽고 있는 도서

<표 14>에서 독서량에 대한 응답결과는 1개월에 1권 정도 책을 읽는 다는 학생이 45.8%로 가장 높고, 1개월에 2권 정도 22.5%, 1개월에 3권 이상이 19.0%의 순이었다.

학생들의 독서의 성향(표 15)는 흥미위주의 대중 소설을 가장 많이 읽고 있었고 (47.8%), 전공서적 16.5%, 철학 예술 서적 10.0%, 고전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로 보아진다.

<표 14> 독서 생활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1개월에 1권 정도		103(48.4)	104(57.1)	90(35.6)	297(45.8)
1개월에 2권 정도		36(16.9)	38(20.9)	72(28.5)	146(22.5)
1개월에 3권 정도		29(13.6)	17(9.3)	36(14.2)	82(12.7)
1개월에 3권 이상		45(21.1)	23(12.6)	55(21.7)	123(19.0)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25.97$  df=6 P<.001

<표 15> 흥미를 가지고 읽는 책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전공에 관련된 서적		37(17.5)	33(18.1)	37(14.6)	107(16.5)
대중 소설		107(50.5)	84(46.2)	118(46.6)	309(47.8)
고전		11(5.2)	5(2.7)	14(5.5)	30(4.6)
철학, 예술 서적		15(7.1)	14(7.7)	36(14.2)	50(10.0)
기타		42(19.8)	46(25.3)	48(19.0)	136(21.0)
계		212(100%)	182(100%)	253(100%)	647(100%)

$\chi^2=12.91$  df=8 P<.01

3) 방과 후 여가 시간 이용 동반자

방과 후 여가 시간을 주로 함께 하는 동반자(표 16)는 친구가 74.7% 로 가장 높고, 혼자 16.4%, 가족과 기타가 각각 4.6%, 4.3% 의 순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표 16> 여가 이용 동반자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친구		162(76.1)	139(76.4)	183(72.3)	484(74.7)
가족		11(5.2)	12(6.6)	7(2.8)	30(4.6)
혼자		29(13.6)	24(13.2)	53(20.9)	106(16.4)
기타		11(5.2)	7(3.8)	10(4.0)	28(4.3)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9.74$  df=6 P<.01

4) 부모와의 친밀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표 17>에서 보면 관계가 좋은 편이다가 62.0%로 가장 높고, 아주 좋다 29.6%, 좋지 않은 편이다 7.3%, 아주 좋지 않다 1.1% 순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8.4%의 학생이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결과는 학생지도에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표 17> 부모와의 친밀관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아주 좋다		56(26.3)	52(28.6)	84(33.2)	192(29.6)
좋은 편이다		139(65.3)	114(62.6)	149(58.9)	402(62.0)
좋지 않은 편이다		14(6.6)	15(8.2)	18(7.1)	47(7.3)
아주 좋지 않다		4(1.9)	1(0.5)	2(0.8)	7(1.1)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10.04$  df=6 P<.05

5) 고민과 고민을 상의하는 대상

학생들의 당면한 고민(표 18)은 진로 문제가 4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성 문제 22.5%, 성적 문

<표 18> 본인의 고민 거리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성적문제		23(10.8)	36(19.8)	52(20.6)	111(17.1)
가족문제		6(2.8)	4(2.2)	10(4.0)	20(3.1)
이성문제		42(19.7)	43(23.6)	61(24.1)	146(22.5)
진로문제		124(58.2)	83(45.6)	111(43.5)	317(48.9)
기타		18(8.5)	16(2.5)	20(3.1)	54(8.3)
계		213(100%)	182(100%)	253(100%)	648(100%)

$\chi^2=15.53$  df=8 P<.005



<표 19> 고민을 상의하는 대상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부모		16(7.5)	11(6.0)	6(2.4)	33(5.1)
교수		7(3.3)	1(0.5)	7(2.8)	15(2.3)
친구		128(60.1)	90(50.5)	136(54.0)	354(54.9)
선배		25(11.7)	37(20.3)	26(10.3)	88(13.6)
상의하지 않는다		30(14.1)	38(20.9)	87(26.6)	135(20.9)
기타		7(3.3)	3(1.6)	10(4.0)	20(3.1)
계		213(100%)	180(100%)	252(100%)	645(100%)

$\chi^2=30.78$  df=10 P<.001

제 17.1% 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을 상의하는 대상(표 19)은 친구가 54.9% 로 가장 많았고, 상의 하지 않는다 20.9%, 선배 13.6%, 부모 5.1%, 교수 2.3% 순이었다.

####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 1) 수, 해운업계의 향후 전망

수, 해운업에 대한 전망을 <표 20>에서 살펴보면, 좋아질 것 같다가 42.6%로 가장 높고, 나빠질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22.0%나 되었다. 그리고 확실한 전망을 판단하지 못한 학생이 35.5%가 되었다. 좋아질 것 같다는 반응이 군산대학교는 34.3% 인데 비하여 부산수산대학교 42.4%, 한국해양대학교 49.0%로 차이가 있었다.

갑판부와 기관부 학과 대학생들의 인식도(표 21)는 나빠질 것 같다가 갑판부 26.4%, 기관부 16.6% 로

<표 20> 수,해운업의 전망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좋아질 것 같다		73(34.3)	79(43.4)	123(49.0)	275(42.6)
나빠질 것 같다		61(28.6)	43(23.6)	38(15.1)	142(22.0)
그저 그렇다고 본다		64(30.0)	50(27.5)	72(28.7)	186(28.8)
잘 모르겠다		15(7.0)	10(5.5)	18(7.2)	43(6.7)
계		213(100%)	182(100%)	251(100%)	646(100%)

$\chi^2=16.52$  df=6 P<.01

<표 21> 승선 전공별 전망

설문내용	대상 학생	갑판부	기관부	계
좋아질 것 같다		151(42.4)	124(42.8)	275(42.6)
나빠질 것 같다		94(26.4)	48(16.6)	142(22.0)
그저 그렇다고 본다		91(25.6)	95(32.8)	186(28.8)
잘 모르겠다		20(5.6)	23(7.9)	43(6.7)
계		356(100%)	290(100%)	646(100%)

$\chi^2=11.22$  df=3 P<.01

전공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2) 졸업 후 전공분야 진로

졸업 후 전공분야 진로에 대한 설문(표 22)은 수, 해운업계가 50.5%로 가장 높고, 수, 해운계 업종과 무관한 업종 29.1%, 모르겠다가 20.3% 순이었다.

그리고 갑관부 학생과 기관부 전공 학생별로는(표 23) 수, 해운계 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 진출 하겠다는 학생이 갑관부 26.4%, 기관부 32.2%로 기관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2> 졸업 후 진로 문제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수, 해운업계		96(45.5)	70(38.5)	160(63.5)	326(50.5)
수, 해운업과 무관한 업종		71(33.6)	58(31.9)	59(23.4)	188(29.1)
잘 모르겠다		44(20.9)	54(29.7)	33(13.1)	131(20.3)
계		211(100%)	182(100%)	252(100%)	645(100%)

$\chi^2=33.79$  df=4 P<.001

<표 23> 승선 전공별 진로 문제

설문내용	대상 학생	갑관부	기관부	계
수, 해운업계		198(55.6)	128(44.3)	326(50.5)
수, 해운업과 무관한 업종		94(26.4)	94(32.5)	188(29.1)
모르겠다		64(18.0)	67(23.2)	131(20.3)
계		356(100%)	289(100%)	645(100%)

$\chi^2=8.23$  df=2 P<.01

3) 수, 해운업계 취업 희망 분야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업종을 <표 24>에서 살펴 보면 수, 해운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지원이 39.6%로 가장 높고, 승선 26.3%, 수, 해운계 일반회사 23.9% 순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일은 승선계 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승선하겠다는 학생이 26.3%에 불과하였다. 계열별로는 수산계가 23.9%, 해운계 30.5%로 해운계가 비교적 높았다.

<표 24> 취업 희망분야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승선		55(26.2)	37(20.6)	75(30.5)	167(26.3)
수, 해운업계 일반회사		52(24.8)	42(23.3)	58(23.6)	152(23.9)
수, 해운업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		87(41.4)	71(39.4)	94(38.2)	252(39.6)
잘 모르겠다		16(7.6)	30(16.7)	19(7.7)	65(10.2)
계		210(100%)	180(100%)	246(100%)	636(100%)

$\chi^2=14.51$  df=6 P<.01

<표 25> 승선 전공별 취업 희망분야

설문내용	대상 학교	갑판부	기관부	계
승선		91(25.9)	76(26.7)	167(26.3)
수, 해운업계 일반회사		70(19.9)	82(28.8)	152(23.9)
수, 해운업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		159(45.3)	93(32.6)	252(39.6)
잘 모르겠다		31(8.8)	34(11.9)	65(10.2)
계		351(100%)	285(100%)	636(100%)

$\chi^2=13.01$  df=3 P<.005

그리고 승선을 희망하는 학생(표 25)은 갑판부 25.9%, 기관부 26.7%로 별 차이가 없었다.

4) 승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간

학생들에게 승선기간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결과를 <표 26>에서 보면 1년이상 3년이내가 31.5%로 가장 많았고, 3년이상 5년이내 31.2%, 1년이내 20.7%, 5년이상 16.6% 순이었다.

특히, 수산계는 3년 승선하겠다는 학생이 21.8%인데 비하여 해운계는 44.8%로 월등히 높았다. 전공별(표 27)로는 3년이상 5년이내가 갑판부 31.3%, 기관부 31.1%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5년이상 승선하겠다는 학생은 갑판부 20.5%, 기관부 11.9%로 갑판부가 월등하게 높았다.

<표 26> 승선 희망 기간

설문내용	대상 학교	군 산 대 학교	부산수산 대 학교	한국해양 대 학교	계
1년 이내		61(29.5)	57(31.8)	14(5.6)	132(20.7)
1년 이상 3년 이내		73(35.3)	73(40.8)	55(21.8)	201(31.5)
3년 이상 5년 이내		47(22.7)	39(21.8)	113(44.8)	199(31.2)
5년 이상		26(12.6)	10(5.6)	70(27.8)	106(16.6)
계		207(100%)	179(100%)	252(100%)	638(100%)

$\chi^2=118.64$  df=6 P < .001

<표 27> 승선 전공별 승선 희망 기간

설문내용	대상 학생	갑판부	기관부	계
1년 이내		73(20.7)	59(20.6)	132(20.7)
1년 이상 3년 이내		97(27.6)	104(36.4)	201(31.5)
3년 이상 5년 이내		110(31.3)	89(31.1)	199(31.2)
5년 이상		72(20.5)	34(11.9)	106(16.6)
계		352(100%)	286(100%)	638(100%)

$\chi^2=10.88$  df=3 P<.01

## Ⅳ. 논의 및 고찰

### 1. 입학동기 및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의식

최근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확고한 주관이나 장래성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이수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입학 동기는 수, 해운산업의 전망이나 장래성을 고려해서라기 보다는 우선 대학에 진학이나 하고보자 하는 목적으로, 성적에 맞춰서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38.9%), 이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의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sup>4)</sup> 등이 1977년에 보고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이 입학한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 수가 없다. 지망학과에 만족한다고 34.4%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평균 54%정도 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학습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학습 분위기는 학습내용의 수용 태도와 목적 의식 고취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으로 기술교육의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학생의 대부분은 3D업종을 피하여<sup>5)</sup>, 학교 교육 내용과 상반된 업종으로 진로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음으로 강의를 청취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 대한 비전이 없는 학생과 진실되게 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간에 이질감을 형성하여 학내 분위기 조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진리 및 학문에 대한 탐구심이 부족하고, 교수와의 토론 부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매력은 물론이고 자기의 장래를 걸고 얼마나 학문을 탐구할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학업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장을 받은 후에는 3D업종을 피하여 사회에 진출코저 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아니라 성실하게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직, 간접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수, 해운계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교육과정 및 교수상에 대한 견해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의 방향은 대학 교육의 특성이나 질적 향상과 학교 운영에 지표가 된다. 교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유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고<sup>6)</sup> 했다.

수, 해운계 대학의 교육은 기술 전문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은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학교 교육의 기본목표는 기술 교육과 인간교육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7.1%로, 중견 기술인 양성교육 11.5%, 특히 승선계 학과 해기사 양성교육은 7.1%에 불과한 것은 대학 교육이 해기사에 국한된 선박 기술자 양성이라기보다 전반적인 해사 기술 교육과 인간관계가 원만한 고급 지도자로서 인격을 갖춘 기술인 양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 시민을 목표로 계획성있게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등을 시대성에 알맞게 검토하여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방향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대학이 국내에 진출하려는 시대적 변천에 대비하여 새로워져야 하고<sup>9)</sup> 수, 해운산업에서 국내외적으로 팽배해져 가는 자원 내쇼널리즘의 경향과 3P(Population, Poverty, Pollution)문제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는 적극적 방향으로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

내외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현상이 가장 기본적인 학생과 교수와의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현실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교수상은 이해심이 많은 교수가 38.4%로 가장 높았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교수가 33.1%나 되는 반면에 공부를 잘 가르키는 교수는 18.1%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 교육이 교수에 의해서 지식만 전달하는 식의 교육보다는 진리탐구 방향을 지도 받으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끈끈한 정이 오고 가는 관계 교육을 바라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자로서의 본질을 구성하는 인간적 특질은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 이상으로 인격도야가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가질수 있는 교수 자질의 필수요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0)</sup>.

요즈음, 기성인들 일부는 일부 대학생들의 밖으로 드러난 양태만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자율만을 주장하고 학문보다는 방종된 생활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이도 있지만, 대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은 진리 탐구의 도장으로써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종보다는 자기의 결점을 지적해 주고 장래 문제를 지도해 주는 교수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학부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지도자세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내용,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의 내용이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할 때 유용할 것 같다(30.6%)보다는 유용하지 않다(36.4%)가 약간 높은 반응을 보였고,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유지한다는 학생은 겨우 13.3%이고, 학점이나 취득하여 졸업하겠다는 학생이 47.7%나 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이 사회에서 거의 쓰여지지 않거나 별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높은 비율(46.3%)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날의 교수는 성직적 위치에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한편 학생을 사랑하는 원천적 마음가짐만 있으면 교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왔다<sup>11)</sup>. 그러나, 오늘의 교수는 그에 더하여 전문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갖춰져야 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술교육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기술인을 양성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수산계 기업인들은 인간교육이 잘 이루어진 기술인을 요구하는 것도<sup>12)</sup> 실질적 교육이 미흡한 대학교육을 간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제도 하루속히 학생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상이 정립되어 쾌락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문도야의 장이 될때 비로소 교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여가 선용, 인격형성에 대한 의식

오늘의 대학 교육은 지식만을 주입하고 있어서 지식 교육은 그래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간 교육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환경, 부모들의 생활 양식과 덕성은 물론, 학교 주변 환경과 교우관계, 독서를 통해서 접해보지 못했던 폭넓은 미지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참된 양식은 인격형성에 좋은 교육 매체가 되고 있다<sup>9)</sup>.

대학 생활에서 가장 보람있는 활동으로 친구 교제가 43.6%, 써클 활동이 30.3%인데 비하여 강의 수강에 대한 보람은 겨우 6.6%에 불과 했다는 사실은 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는 학문연구의 자유가 있고, 그 교수법도 교수에 따라 다르며,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배움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대학은 자유가 생명이요, 본질이라 하지만 대학 본래의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써 이제는 무엇인가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도 학문 보다는 친구를 사귀거나 써클 활동에서 더 보람을 느낀다는 의식도 교육 환경의 개선으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는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이고, 좋지 않다가 7.3%, 아주 좋지 않다가 1.1%나 되었다. 이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겨지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 자녀에 대한 편애 등이 자녀들간의 다툼등으로 번져 갈등을 격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이 세계적으로 열성을 가진 교육 국가로 지목받고 있으나 참다운 교육은 시키지 못하고 있다<sup>9)</sup>.

설문에서 8.4%가 부모님과 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은 가정 교육이 현실적으로 그릇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좋다고 응답한 대학생 중에도 부모의 의사에 맹종하거나 반항하는 학생도 있어, 불건실한 인격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 독자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는 74.7%가 친구와 여가를 지내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문제 48.9%, 이성 문제 22.5% 였고 성적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도 17.1%나 되었다.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54.9% 이고, 부모 5.1%, 교수 2.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가 학생들의 고민이나 장래 진로 문제 등의 상담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 교육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인격 함양과 교양을 위하여 읽고 있는 독서량은 1개월에 1권 정도가 45.8%, 2권 정도가 22.5%였으며, 읽고 있는 내용도 대중소설 47.8%로 가장 많았고, 전공과 관련된 서적 16.5%에 불과 하였다. 이 역시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 취업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산업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대학교

육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 동기, 학문 탐구 등은 장래 취업분야와 일관성 있게 되어야만이 이상적인데도 요즘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수, 해운업계가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42.6%가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반면에 나빠진다고 22.0%, 그저 그렇다 28.8%, 모르겠다 6.7%의 반응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의 선택은 수, 해운계 업종을 선택하겠다는 학생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혀 수, 해운계업종과 무관한 업을 선택하겠다는 학생도 29.1%나 되었으며,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학생 20.3%로 이를 합하면 그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장차 수, 해운계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분야별로 수, 해운업의 관계 공무원이나 공공 단체 희망이 39.6% 이고, 전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해기사 면허를 획득하여 승선하겠다는 학생은 겨우 26.3%(수산계 23.3%, 해운계 30.5%)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적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본<sup>10)</sup>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서 앞의 여러곳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 목적 의식, 입학 후 대학 교육의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 V. 요약 및 제언.

### 1. 요약.

수, 해운계 승선학과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과, 학과 선택은 자기의 확고한 주관과, 장래성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주위의 권고,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다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38.9%나 되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만족한다는 학생은 55% 정도로 이와 같은 결과로는 교육의 효율을 지향하기 어렵다.

2) 수, 해운계 대학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교육해야 한다는 74.3%, 기술 교육과 인간 교육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 77.1%였고, 철저한 해기사 양성 교육은 7.1%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과 과정과 교육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

3)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는 공부를 잘 가르키는 교수(18.1%)보다 이해심이 많은 교수(38.4%)가 높은 것은 교육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적 의미도 함유하고 있다. 교수와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학생은 13.3%였고,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장래 직업 선택에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30.6%에 불과하여 인간교육과 산학 연계교육 등 방법으로 직업에 대한 친화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4) 대학생들이 가장 보람된 학교 생활로 여기는 것은 친구 교제 43.6%, 써클 활동 30.3% 순이나, 강의 수강은 겨우 6.6%에 불과했고, 방과 후 여가 활동은 친구와 지낸다가 74.7%, 혼자 지낸다 16.4%로, 방과 후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은 친구와 지내거나 혼자서 지내고 있으므로 여가 선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부모와의 관계는 91.6%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좋지 않다는 반응도 8.4%나 되었다. 그리고 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문제 48.9%, 이성문제 22.5%였고, 고민을 상의하는 대상은 친구가 54.9%로 가장 높고,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있는 학생도 20.9%나 되었으며, 부모 5.1%, 교수 2.3%로 부모나 교수는 거의 상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수는 강의 이외의 폭넓은 인성교육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6) 졸업 후는 수, 해운계 업종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50.5%이었으나, 수, 해운계 업종과 무관한 업종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29.1%나 되었고, 특히 승선하겠다는 학생은 26.3%(수산계 23.3%, 해운계 30.5%)였으므로 수,해운계 승선 계열 학과의 효율적인 교육 정책의 개선과 개방화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2. 제 언

1) 입학 동기나 학교 선택의 잘못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미 및 소질과 다른 분야를 선택한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 분위기 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으로 입학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질 좋은 학생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첨단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길러주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전인적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양 교육을 강화 시켜야 한다.

3) 학생의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수는 모름지기 학문 전달자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성실한 자세로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교수상 정립이 요청된다.

4) 학생들에게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성 있는 해양 탐구 교육을 초, 중, 고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가 해양민족임을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승선계 학교에 시설 확충과 획기적인 장학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金泰吉,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일조각, 1967.
- 2) 金仁子외,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학 연구소, 1974.
- 3) 鄭興基, 수산전문대학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 대학원 1980, PP 351~389.
- 4) 李吉來외, 해기사 양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수전 논문집 Vol. 11 (1), 1977, PP. 9~40.
- 5) 李圭煥, 3D 기피현상에 대한 고찰, 현대 해양 3월호, 1994, PP 40~47.
- 6) 韓昶愚, 교육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 7) 南宮捷暎, 교사의 교육자적 자질과 역할, 한국교원대 교수논총 Vol 13 (2) 1987, PP 30~31.
- 8) 李炳辰, 한국 교육상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원대 교수논총 Vol 3 (2), 1987, PP 1~26.
- 9) 李圭煥, 학교 교육 과정, 서울, 이대 출판부, 1971, P 111.
- 10) 日本 下關水大, 학교 요람, 1994.
- 11) 군산수산전문대학 생활지도 연구소, 학업 부진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학생 연구 Vol. 1, 1971, PP 20~23.
- 12) 威宗圭, 일반 연수의 오늘과 내일, 교원 연수원 학술 세미나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1986, PP 1~4.
- 13) 李鉉雨, 李瓊竣, 수산고등학교의 의식구조분석, 부산수산대 논문집 40, 1988, PP 77~113.

##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of board system collegian who attended in fisheries and maritime college.**

**Kil - Rae LEE · Seok - Je BAE · Sung - Kun HONG**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I have investigated questionnaire concerning to the view of worth and construction of consciousness as to boarding system collegian who will employed in fisheries and maritime industrie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appeared 38.9% that most collegian had a firm subjectivity about enrolled motive, selection of department. they had selected department according to the neighborhood recommendation, own aquired score rather than the adaption and propection, also it was appeared 55% that they had not satisfied with attending to their college,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ere demolished in such aspects.

It was appeared 74.3% that the education of fisheries and maritime college were divided into theory and practice pertinently also, 77.1% that modulate both technical education and human like education but as a general rule, the education of ocean going liscensed officer was appeared

7.1% only, so that, the reformation of the curriculum and contents of education would be needed.

As to the relation between professors and collegian, it was appeared 38.4% that well understanding professor, 18.1% that well teaching professor, 13.3% that they having humanish relation with professor, 30.6% that they will benefit to vocational selection. consequently, the professor have to brings up the harmony on dint of education and industries.

The things which collegian think to be worth were 43.6%, intercourse of friend 30.3%, circle activity. 6.6% listening lecture, also, the leisure activity after school were 74.7% with friends. 16.4% alone. consequently, the professor has to guide of leisure activity after lesson.

most collegian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91.6%) but the respond with bad relationship was 8.4%. The most serious agony which collegian think about is vocational problems (48.9%), the other sex problem(22.5%). The objects consult with agony was acquaintance(54.9%). The parent(5.1%), professors(2.3%), the collegian who did not consult with agony was 20.9%. The parents and the professor is not object consult with their agony. so that, the professors has to strengthen the education according to the human nature.

As to job after graduation of such college, collegian who wish to be taken job on the fisheries and maritime industry were 50.5%, on the contrary, the collegian who wish to be taken a job no relation with his major subjects was 29.1% especially, the collegian who want to be embarked was 26.3% (fisheries 23.3%, maritime 30.5%). so that, we must adopt the counter plan for the globalization and effective investment on the fisheries and maritime college.